

미국 샌프란시스코

글·사진 | 허웅선 건강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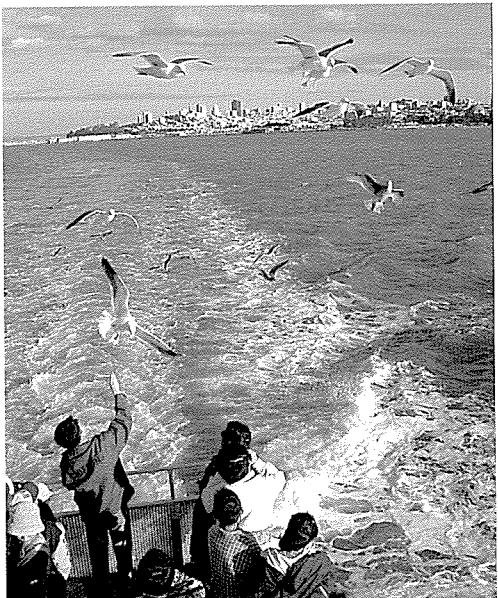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는 **ARTICULATION** 이
플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늘 손꼽히는 곳이다. 사
계절 온화한 기후와 잘 정리된 거리 모습은 이곳을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며 미국에선 드물게 아시아계 주
민이 많이 사는 도시로 한국계 이민자들도 증가하는 곳이다.

▲ 선정기에 들어선 요트들. 주말이면 앞 바다로 둘러나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갖가지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데,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해변에서 수영이나 일광욕, 윈드서핑이나 스쿠버, 바다낚시 등을 하며 낭만과 자유를 만끽한다. 세계적인 살기 좋은 도시의 특징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샌프란시스코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곳 장수 노인들은 온난한 기후 속에서 잘 짜여진 식생활과 부지런한 생활습관으로 살아간다. 맑은 공기와 좋은 주거환경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넉넉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도 샌프란시스코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요인이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많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피셔맨스 워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는 금문교. 한때 악명높은 교도소였던 알카트라스섬. 도심 속의 하나의 중국인 차이나타운. 쇼핑과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유니언 스퀘어 등은 이 도시를 빛내는 주옥같은 곳이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를 다시 방문하여 추억에 남을 만한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칭송된다. 붉은 색으로 칠해진 우아한 다리의 곡선은 주위의 풍경과 잘 어우러져 한 폭의



▲ 유람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면 바다 갈매기들이 먹을것을 달라고 따라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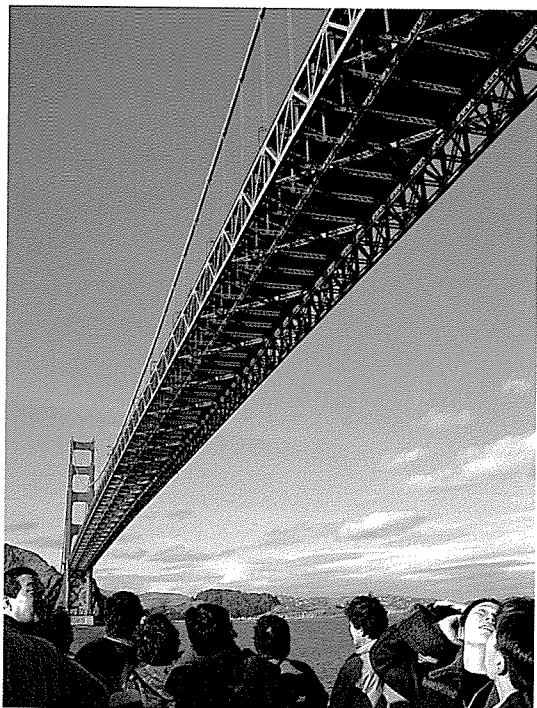
그림을 연상시킨다. 1933년 착공하여 1937년 완공한金門교는 미국 서부의 관문으로 하루에 수만 대의 차량이 통과한다. 유람선을 타고 다리 주변과 밑을 관찰하니 거대한 철근 덩어리였고 물살이 매우 빠른 곳이라 다리 건설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느껴졌다.

피셔맨스 워프는 항구도시인 샌프란시스코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장소이다. 원래 이탈리아 어부들의 선착장으로 사용되던 곳이 개발되어 게나 새우 같은 해물요리 전문점, 다양한 상점과 선물가게, 해양박물관, 소극장 등이 들어서면서 이름난 관광지로 변모한 곳이다. 과거에는 혈값이었던 땅이 지금은 "흙 한되에 금 한되"라고 불릴 정도로 비싼 곳이 되었다. 정박장에는 흰색의 수백 척의 요트들이 있다. 쉬는 날이 되면 주인이 나타나 낚시나 레저를 위해 앞바다로 떠난다.

피셔맨스 워프를 찾아 해물요리 전문점에서 입맛에 맞는 해산물로 식사를 한 후 마켓 거리 동쪽 끝에 있는 39번 부두에서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 여행을 시작했다. 출발한지 얼마 안되어 수백 마리의 바다 갈매기가 나타나 먹을 것을 원했다. 유람선 내에서 돈을 주고 사는 갈매기 모이를 공중에 던지면 갈매기들은 놓치는 법이 없이 잘 받아 먹었다. 아마도 이 갈매기들은 사람이 기르는 것이 아니고 야생상태에서 살아가는 동물인데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어 보였다.

알카트라스섬은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위치한다. 41m의 높은 절벽으로 이루어졌고, 수온도 낮은 해류가 빠르게 흐르므로 교도소로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이 섬이 유명해진 것은 1930년대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알 카포네가 수감되면서 부터이다. 탈주가 불가능한 곳으로 여겨지던 이곳도 1962년 모리스와 앤그린 형제가 교묘한 수법으로 탈주를 하면서 신화가 깨졌다. 현재 알카트라스섬은 관광지가 되어 희망자에 한해 잠시 옛 감옥에 간혀보는 체험관광을 할 수 있다. 육중한 이중문이 닫히고 어두운 독방에 있노라면 참으로 감옥은 사람이 갈 곳이 못된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진다.

유니언 거리에서 바라보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은 참으로 우아하다. 옛날에 목장 지대였던 유니언 거리에는 아름다운 저택들이 늘어서 있고 빅토리아 풍의 가옥을 개조한 레스토랑, 카페, 골동품점 등이 줄지어 서 있다. 유명한 건축물로는 스페레클스 대저택과 하스 릴리엔탈 하우스, 그리고 알라모 스퀘어 등이 있다. 이 중 알라모 스퀘어 옆에 있는 여섯 채의 집은 샌프란시스코를 소개하는 책자나 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곳으로, '여섯 자매의 집'으로 불린다.



▲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金門교. 세계의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는 곳이다



▲ 우리의 그네 비슷한 줄놀이를 즐기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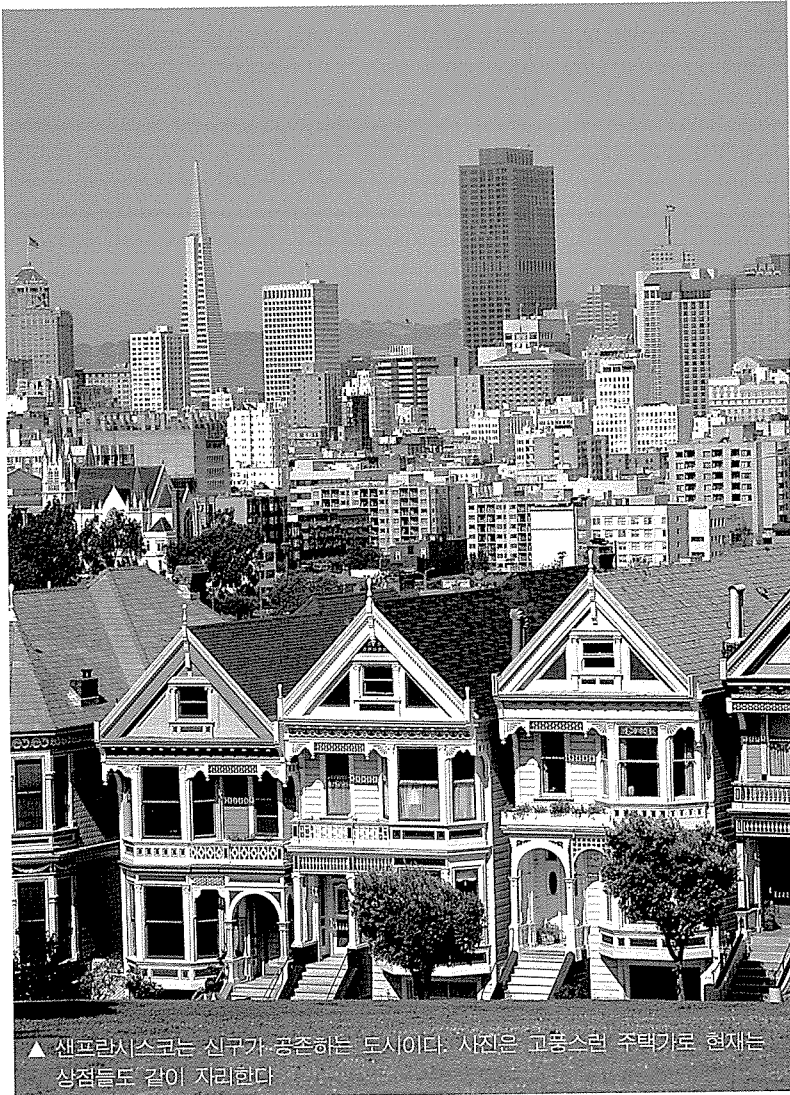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기 좋은 주택가는 태평양이 바라 보이는 언덕에 있는 마리나와 소살리토 지역이다. 마리나는 금문교와 다운타운 사이에 위치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주택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곳 집들은 대부분 19세기 말이나 1906년 대지진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앤 여왕 양식, 고딕양식, 스틱 양식, 이탈리아 양식 등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금문교를 지나 북쪽으로 자동차로 가다 보면 한 폭의 그림같은 주택단지가 나타난다. 소살리토라고 불리는 곳으로 아름다운 별장과 카페들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미국을 상징하는 곳이다. 많은 화가들과 문인(文人)들이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언덕과 바다를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세계적인 문호인 헤밍웨이도 한 때 이곳에서 집필 활동을 했다고 한다. 소살리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인이나 화가들이 이곳 선창가의 창고를 사용하면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지역이 되었다. 소살리토의 중심은 브리지웨이 거리인데 불과 1킬로미터 남짓한 짧은 거리이지만 선창가를 따라 길 양편에 독특한 선물 가게들이 즐비하다.

샌프란시스코의 기후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지역으로 여름에 신선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기후 조건에 따라 냉기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예로부터 벽난로를 중요시 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중에는 고풍스런 목조 건축물도 적지 않다. 이런 주택들은 빛과 신선한 공기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넓은 테라스에 식탁이나 테크용 의자를 놓고 옥외 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유니언 광장은 샌프란시스코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백화점과 보석상 등 다양한 전문상점 등이 몰려있어 쇼핑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가까운 곳에는 차이나타운과 재팬타운이 있어 동양과 서양문화가 잘 어우러지는 국제문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차이나타운을 걸다보면 이곳이 미국인지, 중국인지, 아리송해진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도 대부분 중국인이고 간판도 한자로 되어 있다. 미국내에서도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라는 이곳을 지나면서 코리아 타운도 번성하여 교민들의 권익이 잘 대변되고 한국 문화도 더욱 융성해지기를 바랐다. ■



▲ 샌프란시스코는 친구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사진은 고풍스런 주택가로 천재는 상점들도 같이 지리한다